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욘 3:23)의 이중적 레테르(letter)

류사라(백석대)

1. 들어가는 말

최근의 욘기 연구¹는 히브리 성경에 대한 어원학적, 수사학적, 의미론적 접근을 포함하여 욘이라는 인물에 대한 철학적, 문학적, 미학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의 현대적인 관점과 새로운 이해의 노력이 욘기 연구에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다양한 욘기 해석의 시도들 가운데 하나로써, 본 논문은 히브리 성경에서의 언어와 본문, 수사학적 위치와 배열 안에 숨어있는 작

-
- 1 최근의 욘기 연구사에 대하여는, 하경택, “욘기 연구사: 2000년대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8 (2015): 264-301을 제안한다.
 - 2 김선중은 성경학자로서, 멜랑콜리아의 이론으로 욘의 존재론적 상태를 분석한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선중, “욘과 멜랑콜리아-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구약논단」 78 (2020): 8-36.

은 의미를 섬세하게 관찰함으로써 욱기의 메시지가 현대의 욱기 독자들에게 의미 있게 읽힐 수 있게 하기 위한 제안이다. 필자는 욱이 프롤로그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하고 추구하던 사람이 3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탄식하며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특별히 욱의 탄식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3장 23절에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묘사하는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행동을 조명하였다. 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둘러싸는 행동은 욱에게 감금과 봉쇄, 차단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욱기의 프롤로그인 1장 10절에서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³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로 묘사하고 있었다. 즉 하나님의 행동이 ‘보호’와 ‘차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살피는 과정에서 이중적 기능은 표면적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호를 위한 차단’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3장 2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은 욱이 죽음에 이르고자 하는 길을 막으려는 행위로서 궁극적으로 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해석의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욱기 3장의 구조와 장르, 문예적인 스타일을 스케치하고, 이후 3장 23절을 분석하여 사탄은 ‘보호’로, 욱은 ‘차단’으로 표현한 용어의 이중적 의미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통합되고 수렴되고 있는지 탐색하려 한다.

3 새번역.

2. 욥기 3장의 구조와 장르

도입	1-2절	저주의 서사적 신호
1연	3절	태어난 날의 저주
	4-6절	탄생의 낮
	7-9절	잉태의 밤
	10절	태어난 날의 저주 강조
2연	11-12절	잉태와 탄생에 대한 탄식
	13-16절	죽음의 세계에 대한 동경 1
	17-19절	죽음의 세계에 대한 동경 2
3연	20-23절	죽을 수 없는 삶에 대한 탄식
	24-26절	고난의 삶에 대한 강화된 탄식

위와 같은 3장의 구조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한 일반적인 구조이다.⁴ 몇몇 학자들은 2연(11-19절)과 3연(20-26절)을 묶어 애가(lament)로 분류한다.⁵ 히브리 성경의 일반적인 애가는 죽음이나 원수의 공격, 재난이 일어난 후의 상황에서 부르는 슬픔의 시이며 노래이다.⁶ 그러나 욥기 3장은 죽음을 갈망하며 부르짖는 측면을 포함하기에 히브리 애가의

4 Samuel Rolles Driver and George Buchanan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Together with a New Translation* (ICC; 1921; repr., Edinburgh: T&T Clark, 1964), 29-35; D. J. A. Clines, *Job 1-20*, WBC, 17 (Waco: TX, Word, 1989), 76; J. E. Hartley, *The Book of Job*,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88), 88; 하벨은 1-2절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저주(3-10절), 탄식(11-26절)으로 나눈다: N. C. Habel, *The Book of Job*,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103.

5 C. L. Seow, *Job 1-21: Interpreta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Eerdmans, 2013), 313-15; Gerald H. Wilson, *Job*, (Grand Rapids, MI: Baker, 2007), 35-42.

6 애가의 미학, 애도의 목적과 대상, 상태와 기능에 대한 연구로 Patrick D. Miller, "Trouble and Woe: Interpretation the Biblical Lament," *Int* 37 (1983): 32-45; 고대근동과 이스라엘의 애도의식에 관련해 Xuan Huong Thi Pham, *Mourning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Hebrew Bible*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1999)를 제안한다.

기능을 넘어선다.⁷ 그 형태는 애가이지만 내용은 일반적인 애가에서 확장되고 강화된다. 따라서 욕기 3장을 탄식이라는 넓은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여긴다.⁸

1연에서 욕은 자신의 날⁹을 저주한다(1-2절). 그날은 욕이 태어난 날이며 잉태되던 밤이었다(3절). 욕이 태어나던 날의 빛은 빛나지 말았어야 했고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뒤덮었어야만 했다(4-6절). 욕이 잉태되던 밤은 생명이 없는 불임의 밤이어야 했고 적막한 밤이어야만 했다(7절). 그 밤은 저주자들에게 의해 저주받는 밤이어야 했으며 바다 괴물¹⁰을 격동시키는 이들이 일어났어야 했던 밤이고 새벽의 별들조차 어둠이어야 했던 밤이다(8-9절). 이렇게 자신이 나던 낮과 밤에 대한 뒤집힌 소망은 자기저주로 강조된다(10절).

2연도 1연과 같은 맥락의 주제이지만 1연에서 자신의 소망과는 다르게 흘러간 탄생의 밤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파고들며 탄식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탄생은 첫 지점인 자궁과 모태, 무릎과 젖의 물림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한다(11-12절). 이러한 탄생과 잉태에 대한 역행적 소망¹¹은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으로 비약된다(13-16절).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죽음의 세계는 욕의 동경 아래서 안식과 평화의

7 Clines, *Job 1-20*, 76; Seow, *Job 1-21*: 314 참조.

8 사실상 'lament'는 우리말 '애가'와 '탄식시'로 교차적으로 번역되고 있다. 필자는 애가의 형태와 시적 미학, 기능을 고려할 때 애가를 탄식의 범주 안에 속한 슬픔을 표현하는 양식이라고 판단한다.

9 "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탄생과 잉태를 포함한 생일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으며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현재의 '삶'일 수 있다.

10 리워야단(개역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큰 악어(개역한글), 큰 고래(LXX)로 알려져 있다. 욕기에서 발견되는 리워야단의 우주적인 규모와 상징성에 대하여, René A. López, "The meaning of 'Behemoth' and 'Leviathan' in Job," *Bibliotheca Sacra* 173 (2016): 401-24를 제안한다.

11 Leo G. Perdue, "Job's Assault on Creation," *HAR* 10 (1986): 305-8.

공간으로 묘사된다(17-19절).

3연에 이르러서는 2연에서 동경의 대상이었던 죽음이 결국 동경으로 남게 된 현실의 삶, 즉 '죽을 수 없는 삶'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왜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이 임하고, 왜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탄식을 쏟아낸다(20절). 이것은 앞서 자신의 탄생의 날과 잉태의 밤을 저주했지만, 현실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죽음을 동경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갈 수 없는 세계라는 인식 후에 터져 나오는 탄식의 집합체가 된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22절) 옴은 고난의 삶을 죽음으로 끝내고자 하는 갈망마저 보이지만 이 갈망은 거절되고 절망과 신음이 더해진 혼란으로 귀결되고 있다(25-26절).

옴기 3장의 장르를, 옴이 자신의 탄생과 잉태에 대하여 부정하며 쏟아내는 3장의 말들을 근거로 하여 단순한 정서적 갈등이나 고통, 절망적인 트라우마 상태를 표현하는 독백¹²으로만 볼 수 없다. 또한, 죽음의 갈망에 대해 반복하는 문예적 스타일을 보이고는 있지만, 고난의 삶으로부터 도피하고자 죽음을 찬양하는 사람의 시(詩)도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한 사람의 질문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복합적으로 영겨 있는 탄식이다.¹³ 이 탄식은 슬픔의 애가보다 크고 넓고 깊은 의미로 분류되어야 한다. 주석학자들이 독백의 장르로 분류하고 애가로 규정하는 측면을 포함할 수 있는 넓은 범주이어야 한다. 옴의 탄식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부르짖음이며 저항의 질문이며 임재의 촉구이다. 옴의 탄식이 주목하는 궁극적 존재는 하나님이다. 옴은 자신의 탄생과 잉

12 Leo G. Perdue, *Wisdom &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4), 133;

13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애가, 독백, 탄식시의 혼합된 형태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의를 시도한다. Seow, *Job 1-21*: 314 참조.

태를 저주하며 탄식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삶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며 그의 갈망의 목표인 죽음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는 존재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힌다.

시편의 기도자들은 그들의 탄식의 원인으로 지목한 존재들이 외부의 원수들이었다. 그들은 원수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탄원한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놓일 것을 탄원한다.¹⁴ 3장에 개별적인 제목을 붙인다면, “탄식케 하시는 하나님”이 적절할 만큼 욥의 울부짖음은 강력하고 비통하다.¹⁵ 욥은 자신의 삶으로 인해 탄식하고 또한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탄식한다. 이러한 탄식은 욥이 현재 죽음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으며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심연 가운데 있음을 욥기 독자들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욥기 독자들은 이후 욥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에 주목할 것이다.

3. 욥기 3장의 문예적 스케치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3:1-2)

욥기 3장 1절은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날을 저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앞으로 욥의 말들이 저주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예측하게

14 Seow, *Job 1-21*, 368-69.

15 유사라는 욥기 3장을 ‘혼란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도 분석한 바 있다: 유사라, “욥의 하나님 인식 변화 연구,” (서울: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88-98.

해주는 서사적 신호이다.¹⁶ 욥기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을 권면하였다. 욥은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욥기 3장에서도 그 저주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린다.¹⁷ 저주가 향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것이라는 내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욥의 신실함은 아직 상실되지 않았다.

또한 욥이 말 문을 연 것으로서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알리며 새로운 막이 열린 것을 상징한다.¹⁸ 욥기 프롤로그(1-2장)가 욥기 전체를 관망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제시하였다면 욥기 3장은 하나의 새로운 플롯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1-2절). 이 저주의 원인은 앞서 욥기 프롤로그를 통해 욥이 당면한 재앙과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욥기 프롤로그는 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¹⁹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16 Lance Hawley, "The Rhetoric of Condemnation in the Book of Job," *JBL* 139 (2020): 469.

17 강성열은, 욥이 재앙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도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다고 해석하면서 욥의 이러한 태도를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강성열, "코로나 위기 시대와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논단』 82 (2021): 245.

18 프롤로그에서의 욥은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3장에서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역행된다.

19 Ellen Van Wolde, "The Problem of the Potsherd," *OTE* 31/3 (2018): 693.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날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위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3:3-10)

3-10절²⁰의 읍의 첫 탄식은 자신의 탄생일과 잉태된 밤에 대한 것이다(3-4절). 태어나던 날과 잉태되던 밤은 사라져 버려야 했고 “남자아이”²¹를 배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사라졌어야 했다. 태어나던 날이 어둠을 뚫고 밝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가능한 일이 된다(4절).²² 만약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하고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이 어둠에 덮이는 질서의 전복 현상이 일어났더라면 그래서 검은 구름에 의해 그날이 공포에 찻더라면(5절)이라고 읍은 바란다. 이 구절에서 어둠과 검은 구름은

20 델(Katharine Dell)은, 3:1-11을 예레미야 20:14-18과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논문에서 가장 주요한 관련성을, 남자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저주로 들었다. Katharine Dell, “Cursed Be the Day I was Born,” in *Reading Job Intertextually*, eds., Katharine Dell and Will Kynes, (JSOTSup 574; Bloomsbury: T&T Clark, 2013), 109.

21 “남자아이”(נַרְיָ/게베르)로 번역된 이 어휘는 사실상 성인 남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로써 읍은 잉태된 그 밤의 남자아이를 현재의 자신과 동일시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22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날을 일정하게 밝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읍은 인식하고 있다. 창조의 하나님이 읍이 태어나던 날을 돌보지 않았었기를 바라고 있다.

마치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묘사되고 있다. 흑암은 옴이 잉태되던 밤을 사로잡았어야 했다. 그렇다면 옴의 탄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6절). 만약 옴이 잉태되던 밤이 완전한 불임의 밤이었고 아무도 잉태로 인해 기뻐하지 않는 밤으로 정해졌더라면 현재 자신의 고난은 제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소망한다(7절). “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리위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기를 바란다(8절).²³ 그렇다면 그 밤은 새벽 별들도 빛을 잃고 날은 계속 어두웠을 것이며 동이 트지도 않았을 것이다(9절). 옴은 이렇게 현실과는 다른 소망을 다시 되짚어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았기를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겪게 되지 않았어야 했기를 재차 바란다(10절).

옴은 마치 ‘진멸의 바람’을 가지고 탄식한다.²⁴ 이 진멸의 바람은 자신의 현재 고난의 근원을 제거하는 탄생의 날과 잉태의 밤을 소멸시키는 것이다.²⁵ 옴은 “그날”과 “그 밤”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옴의 탄식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사역을 역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잉태와 탄생이 있게 하시고 밝음은 밝음의 때에 어둠은 어둠의 때에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인정하고 있다. 옴의 하나님 인식 속에는 창조와 질서, 잉태와 탄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초래되었음을 알려 준다. 즉 옴에게 창조의 주제는 하나

23 여기서 “날을 저주하는 자들”과 “리위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대칭을 이룬다. 이러한 존재는 뒤이어 그 밤을 저주했어야만 했다. 이들은 “별”, “광명”, “동틈”과 대비를 이룬다. 옴은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다: Abigail Pelham, *Contested Creations in the Book of Job*, (BIS 113; Leiden/Boston: Brill, 2012), 225-30 참조.

24 하경택, “옴기에 나타난 소통 신학,” *Canon&Culture* 제7권 2호 (2013, 가을): 27-28.

25 윗글, 28.

님을 찬양하기 위한 주제가 아니라 탄식의 기초로 작용한다.²⁶ 읍은 시편이나 지혜 문학의 전통을 역전시킨다.²⁷ 지혜문학의 결론은 하나님의 행동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송축하지만, 읍에게는 하나님의 위엄이 이해할 수 없는 위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에 감사할 수 없다. 잉태를 막을 수 없었다면 탄생과 양육의 과정에서라도 자신이 소멸될 수 없었을까 하는 탄식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쉬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중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3:11-19)

11-19절에서 읍은 앞서 탄생과 잉태를 저주했던 것이 현실이 될

26 윗글, 28.

27 윗글, 28.

수 없음을 깨닫고 탄생과 잉태의 밤의 실제적인 환경에서의 죽음에 대해 동경을 표현한다. 이를 위해 질문을 사용하여 진술함으로써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라고 탄식한다. 창조의 하나님, 탄생과 잉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탄식이다(11절). 그렇게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옴이 누군가의 무릎²⁸에 받게 하셨고 젖을 물게 하셨다. 옴은 태어나는 것이 방해되지 않았더라면 태어난 직후 양육되지 않았어야만 했다고 탄식한다(12절). 그런 방식으로 양육만 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죽음의 세계에서 편하게 누워 쉬고 있었을 것이라 소망한다(13절).

옴에 의해 묘사되는 죽음의 세계가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옴의 진술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²⁹ 옴에 의하면 죽음의 세계는 안식과 평화가 있고 안전하며 자유가 있는 곳이다(14절). 그곳의 안식에는 계층이 없고 경제적 능력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15절). 옴이 동경하는 죽음의 세계는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의 부재로 인한 평화가 있는 곳으로 이상화되어 있다. 자신의 불행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처와 같다. 죽음의 세계에서 자신의 상태는 낙태된 핏덩이(민 12:12; 시 58:9; 옴 10:18-19), 햇빛을 보지 못한 핏덩이이었을 것이다(16절). 옴이 갈망하는 죽음의 세계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사 57:20).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무력해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다(17절). 그곳은 갇힌 자들도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다(18절).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중

-
- 28 옴기 3:12의 “무릎”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는 Juliane Eckstein, “Why did knees meet me?’ giving birth on one’s knees in Job 3:12,” *CBQ* 81 (2019): 381-404가 유용하다.
- 29 옴기에 나타난 죽음의 이해에 관하여, Dan Mathewson, *Death and Survival in the Book of Job: Desymbolization and Traumatic Experience*, JSOTSup. 450. (NewYork, London: T&T Clark, 2006)을 제안한다.

이 주인에게서 놓이는 자유가 있는 곳이다(19절). 욕에게 죽음의 세계는 계급이 사라지고 속박과 묶임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³⁰ 이러한 죽음의 세계에 대한 욕의 갈망은 3-10절보다 확장된 상태의 탄식으로 나타난다. 탄생과 잉태가 부정될 수 없다면 탄생이 이루어진 환경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어야 했다는 갈망의 표현이 더욱 뚜렷한 주제로 부각된 것이다. 현실의 고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죽음에 대해 동경은 마지막 구절들에서 한층 강화되어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욕은 자신의 갈망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며 그 갈망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지목한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나님에게 둘러 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서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3:20-26)

20-26절에서는 11-19절의 죽음을 향한 동경이 더 강화된 탄식의

30 사 61:1-3; 3:17-19. 약한 자/피곤한 자/, 갠한 자/감독자/, 작은 자/큰 자, 중/상전은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는 갈등 구조다. 욕은 이러한 갈등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는 곳으로 죽음의 세계를 생각한 것이다: 권지성, 『특강 욕기』 (서울: IVP, 2019), 61 참조.

로 나타나고 있다. “왜”라고 다시 질문하는 것은 앞선 질문 형태의 반복이며 더욱 적극적인 대답의 요청이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구체화 된다. “왜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가”, “왜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³¹라고 질문하고 있다. 욥은 고난 겪는 자들과 쓰디쓴 인생에 자신을 결속시킨다.³² 그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욥의 문제 제기는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또한 미래를 예고한다³³ 이 질문에서 빛과 생명을 주시는 주어는 숨겨져 있으나 질문자인 욥을 통해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³⁴ 이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에바흐(Jürgen Ebach)의 진술을 통해서이다. 에바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문 자체이다. 욥기 9장 24절에서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시랴’라고 말하고 있다.”³⁵라고 주목한다. 이 질문에는 고난의 삶이 있고 고단한 인생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20절)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빛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갈망하지만 죽음이 오지 않는다(21절). 보물을 찾을 때의 강도보다 더한 강도로 죽음을 열망한다(22절). 다시 말해 자신은 고난 겪는 자들 중 하나이며, 쓰디쓴 인생 중 하나이며 보물을 찾을 때의 심정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죽음

31 새번역은 더욱 적절하다: “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32 “욥은 자신을 고난 겪는 자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21, 22절에서도 마찬가지다”: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103.

33 욥은 죽음에 대한 열망과는 다르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또 살아가게 될 것을 예고한다. Jürgen Ebach,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하경택 역, (서울: 한들, 2002), 53 참조.

34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103 참조.

35 에바흐는 창 22장의 본문 읽기를 제안한다.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요구한 분이 하나님이었나? 만약 그가 아니셨다면 누구이셨으랴?”라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욥의 질문이 향하는 주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해준다: Ebach,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53.

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에게 빛과 생명을 지속해서 주심으로 죽음에 대한 갈망은 무시될 뿐 하나님에 의해 계속 살게 된다는 것이다.

욥은 이제 자신을 죽음을 갈망하는 자들로부터 떼어내어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고 구별함으로써 자신을 “~하는 자들”의 집합적 존재에서 개별적인 존재로 전환한다. 20-22절에서 복수로 지칭되던 사람들의 하나로 자신을 받아들이다가 단수인 “한 남자”(אִישׁ/게베르)의 탄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제부터 3장의 욥의 탄식은 자신의 탄식으로 집약되며 그 내용 또한 선명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욥기 저자의 의도적인 ‘줌 인(zoom in)’으로서 욥에게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수사적 장치이다. 그 남자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욥기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욥을 놓으시면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23절은 하나님이 욥의 길을 막으므로 욥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음이 구체적으로 진술된다. 하나님이 욥의 길을 숨기시고 막으시는 행동 때문이다. 23절에서 죽음에 대한 소망은 좌절되었고 개인적이며 강화된 탄식으로 전환되었다. 욥의 관점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막음은 이스라엘의 길ियो 삶의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욥의 관점대로 정말 하나님은 욥을 가로막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막으시는가. 욥이 막혀 있다고 여기는 길은 어떤 길인가의 문제가 드러난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멀리 계심이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봉쇄의 근원이 되시는 것에 있다.³⁶ 하나님의 봉쇄는 욥의 탄식을 더욱 극한에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탄식이 이 남자의 양식이라면 그의 생명은 비통이며, 눈물이 이 사람의 양식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

36 허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104-05.

지 않을 만큼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는 신음이 물처럼 흐르고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이 닥쳐오고 무서워했던 것이 몸에 미쳐 모든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고난에 이르렀다(26절). 이처럼 욥에게 물밀 듯이 밀려오는 고난의 형태는 그의 모든 것을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제 필자는 3장 23절을 분석하여 “하나님에게 둘러싸여”가 의미하는 것, 즉 욥에게 숨겨졌고, 가로막혔고 봉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그 길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4. 욥기 3장 23절

23a לָנֶבֶר אֲשֶׁר-יָדָרְכוּ נִסְתָּרָה

23b וַיִּסָּךְ אֱלֹהִים בְּעָרוֹ

그의 길이 숨겨진 그 남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그에게³⁷

대부분의 번역은 이 구절을 20절의 “어찌하여(왜)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라는 질문과 연관하여 이해한다.³⁸ 다음의 번역들을 살펴보면;

Why is life given to a man whose way is hidden, whom God has hedged in?(NIV)

37 분석을 위하여 개역개정어 아닌 필자의 사역을 첨가하였다.

38 Habel, *The Book of Job*, 99; Hartley, *The Book of Job*, 97.

Why is life given to those with no future, those God has surrounded with difficulties?(NLT)

Why is light given to a man whose way is hidden, whom God has hedged in?(ESV)

Why is light given to a man whose way is hidden, and whom God has hedged in?(NKJV)

To a man whose way is hid, and whom God hath hedged in?(TNK)

Why give light to one who does not see his way, whom God shuts in all alone?(NJB)

God keeps their future hidden and hems them in on every side (Goodnews Bible)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개역개정, 개역한글)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새번역)

아무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쉬운성경)

빠져나갈 길은 앞뒤로 막히고 하나님께 영락없이 갇힌 몸(공동번역)

대부분 의문사를 삽입하여 질문의 형태로 번역하였다. 특이점으로는 ESV와 NJB의 경우 “life”를 “light”로 번역한 것이며³⁹, TNK, 공동번역은 의문사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석학자들도 의문사를 삽입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 그대로 본다면 23a에서 간접목적어인 “그 남자에게”가 구절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 용어가 처음 등장했던 3절을 상기시켜 주는 동시에 그의 문제가 이 구절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길이 숨겨졌고 하나님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또한,

39 알던은 “Light”로 대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Robert L. Alden, *Job*. NAC. Vol. 11.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1993), 79.

그는 빛에 의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그는 죽음을 원하지만 죽을 수도 없게끔 지속적으로 빛, 즉 생명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23절은 욥의 자아상과 욥이 현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다. 욥은 앞선 구절들과는 다르게 23절에서는 단수로 묘사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지 않고, “한 남자”라고 부른다.⁴⁰ 그것은 3절의 잉태서술을 상기시킴으로써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대칭적 구조를 통해 이 남자는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욥의 실존을 공개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¹

1) 길이 숨겨진 사람

23a의 동사 סָתַר(사타르/덮다)는 구약성경에서 비슷한 의미로 “숨기다”, “감추어진”(창 4:14; 31:49; 신 29:28), “알려지지 않은”(호 13:14), “발견되지 않은 채 남겨진”(민 5:13), “안전하게 보존된”(슥 2:3)으로 사용되었고, “허물이 가려진”(시 19:13)으로 사용되었다. 주목해야 할 의미는 “비밀로 하다(kept secret)”이다(잠 27:5). 욥은 자신의 길이 숨겨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숨겨진 대상은 ‘욥의 길’이고 숨긴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길을 비밀로 하신 것이며 욥은 그것을 숨겨진 길로 인식하고 있다.

욥이 자신에게서 숨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이 “길”에 대하여 드라이버는 “방향을 볼 수 없고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길”, “육체

40 드라이버는 “한 남자”(a man)를 욥으로 읽어서 “욥의 길이 숨겨졌다”로 해석한다. Driver, *The Book of Job*, 39.

41 Seow, *Job 1-21*, 333; Clines, *Job 1-20*, 101;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104.

적 고통과 정신적 중압감을 가져온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아서 재앙과 혼란에서 탈출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⁴²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클라인스(David J. A. Clines)는 “욥 자신의 운명, 앞으로의 삶, 방향과 목적”을 의미한다고 했다.⁴³ 클라인스는 욥의 운명(destiny), 미래, 앞으로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했다는 의미로서 욥이 전체적인 인생의 방향성을 잃은 것이라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틀리(John E. Hartley)는 “그의 운명”을 일컫는 것이며 길이 숨겨졌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좌절과 환난으로 인한 상실과 절망의 표현이라고 보았다.⁴⁴

그러나 욥의 앞의 진술의 맥락에서 볼 때, 그 길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앞에 놓인 삶은 공포와 좌절, 상실과 상처로 뒤엉켜 있다. 모든 인생에게 빛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에 해당하지만, 욥에게는 고난의 삶을 지속시키고 절망을 주는 생존의 장치이다. 욥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땅에 묻힌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하게 간절히 죽음을 구하고, 무덤을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21-22절)고까지 죽음에 대한 자신의 깊은 갈망을 진술한 직후 갑자기 자신의 인생 목적과 방향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서 욥이 말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인가. 사실상 23절을 통해서만은 그 길의 어떤 길을 말하고 있는지 모호하다. 하지만 앞선 구절들을 통해 그가 지금 구하고 있는 간절한 길은 죽음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현재 욥이 구하고

42 Driver, *The Book of Job*, 38-39.

43 Clines, *Job 1-20*, 101.

44 Hartley, *The Book of Job*, 99. 그러나 윌슨은 이 길이 단순하게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상과 실제적인 적용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해석 또한 명료하지 못하다. Wilson, *Job*, 41.

있는 길은 “왜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죽기를 바라지만 죽지 못하고 땅에 묻힌 보물을 찾는 것보다 죽음을 구하는 그것을 더 열심히 하며 무덤을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20-22절)의 탄식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22절까지 옴은 빛, 생명, 삶은 거절하고 죽음을 갈망한다. 즉 옴은 지금까지 빛과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으로의 길을 말해왔다. 그러나 옴이 간절히 원하는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 의해 숨겨져서 모든 경로가 막혔고 자신이 원하는 죽음의 세계에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23a에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옴은 죽음으로의 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 그 길이 숨겨졌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옴이 숨겨졌다고 말하는 “길”은 ‘죽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숨기셨다. 죽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옴에게 비밀로 하신 것이다. 옴은, 그에게 비밀이 되어 하나님에 의해 숨겨진 이 길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숨겨짐은 23b에서 더욱 강화된다. 히브리시학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어휘로의 반복을 통한 강화가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⁴⁵

2)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23a에서의 이 남자의 탄식은 23b에서 더 악화된다. 23a에서 숨겨진 길은 23b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싸고(גָּבַל)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동사 “גָּבַל”은 ‘격리하다’, ‘덮다’(왕상 8:7; 겔 28:14; 시 140:8; 옴 40:22), ‘둘러싸다’(애 3:44), ‘차단하다, 접근을 막다’(출 40:21; 시 5:12; 옴 38:8; 시 91:4)의 의미를 가진다. 즉 하나님께서 그곳으로의 접근을 막

45 히브리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로, 방정열, “히브리시의 평행법과 한글 번역: 한계와 여지,” 『구약논단』 69 (2018): 107-39를 제안한다.

으셔서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죽음으로 가고자 하는 출구를 찾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막는 행동으로 인해 그의 길은 23a보다 더욱 어두워졌다.⁴⁶ 하나님은 울타리와 같은 것으로 그의 길을 둘러싸셔서 그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없고 전진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⁴⁷ 욥은 죽음의 세계로 향하는 그의 갈망으로부터 격리되었다. 23b에 의하면 욥은 하나님에 의해 그의 가는 길이 제한되고 가로막혀있는 사람이다.⁴⁸ 따라서 그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죽음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이 그 길을 숨길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막으셨기 때문이다. 이곳에 사용된 이 용어는 호세아 2장 6절,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קָשָׁה)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와 예레미야 애가 3장 7절, “나를 둘러싸서(קָשָׁה)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에서 차단과 징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욥기 38장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קָשָׁה) 자가 누구냐”에서 바다의 우주적인 통제를 묘사하는데에도 사용되었는데 태초에 운행하던 물의 무질서는 창조의 하나님에 의해 질서 있게 통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창 7:11; 8:2; 사 24:18; 말 3:10).⁴⁹

하틀리는 하나님께서 욥이 처한 곤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찾을 수 없도록 울타리로 에워싼 것이며 그를 혼란 속에 가두고 열쇠를 던져버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⁵⁰ 하틀리의 해석은 욥을 하나님께서 그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통

46 Seow, *Job 1-21*, 370.

47 Hartley, *The Book of Job*, 99.

48 Clines, *Job 1-20*, 100-01.

49 Seow, *Job 1-21*, 370; 특별히 욥기에서 창조세계의 통제와 질서는 중요한 주제이다. 강철구, “여성적 관점에서 본 욥기,” 「구약논단」 70 (2018): 70.

50 Hartley, *The Book of Job*, 99.

제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단은 욥이 가려고 하는 죽음의 세계로의 길에 대한 것이다. 클라인스의 해석이 조금 가깝다. 욥을 둘러싸신 것은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욥에게는 적대적인 압박이지만 욥을 계속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이다.⁵¹ 윌슨(Gerald H. Wilson)은 “욥은 오직 죽기만을 원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둘러쌈은 욥의 죽음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을 지속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했는데 욥이 원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막고 있다는 필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3) 3장 23절의 770와 1장 10절의 771의 의미론적 충돌⁵²

하나님의 차단 행동에 대한 욥의 관점은 1장 10절의 사탄의 진술과 충돌한다. 사탄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의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울타리로 보호하는 것과 같이 둘러서(771) 그가 안전하며 그의 모든 것이 번영하고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 사탄의 진술은 선명하며 회의적이지 않고 어떠한 악의도 없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인식한 진정성 있는 표현이다.⁵³ 여기서 인식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⁵⁴ 이 용어는 사탄에게서 ‘보호’로, 욥에게는 ‘차단’으로 사용되는 이중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누구의 진술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51 Clines, *Job 1-20*, 101.

52 770와 771는 주로 동일시 된다(욥 10:11; 호 2:8).

53 Clines, *Job 1-20*, 101; Wilson, *Job*, 41.

54 Hartley, *The Book of Job*, 99; Alden, *Job*, 79; Wilson, *Job*, 41;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103.

발생한다. 욥기 저자는 사탄의 진술을 통해 이 용어를 ‘긍정의 모티프’로 사용하고 욥의 탄식을 통해서 ‘부정의 모티프’로 사용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아이러니한 인식에 대하여 하경택은, 욥의 문제가 ‘하나님의 멀리 계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때문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⁵⁶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시편의 독자들에게는 긴급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은혜의 거리에 있는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욥에게는 가까이 계셔서 자신의 삶을 움짱달짝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답답한 거리의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도 적절한 면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안한다.

사탄은 이 용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욥기 독자들에게 먼저 알렸다. 이것은 프롤로그에서 사탄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며 욥기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같다. 하나님의 행동을 향한 사탄의 질문과 문제제기는 3장에서 욥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같은 방식의 질문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발언된다. 사탄의 질문은, 프롤로그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욥 2:6)에서 대답되고 있다. 사탄은 욥의 생명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므로(יָצַח), 욥의 생명은 궁극적으로 보호될(יִשָּׁר) 것이다.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죽음의 세계로 향하는 길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밝혔다. 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죽음이었다. 죽음을 통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다. 욥이 소망하는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숨기시고 울

55 Seow, *Job 1-21*, 370; Gerald J. Janzen, *Interpretation, Job*,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65; 하경택은 욥의 관점에서 “봉쇄의 모티프”, “감시의 모티프”, “공격의 모티프”로 해석했다.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105.

56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104-05.

타리를 치고 차단하셨다. 이것이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욥이 죽음의 세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시므로(755), 욥의 생명은 보호될(717)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언급과 욥의 관점은 표면적으로 충돌하였다. 이러한 의미론적 충돌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사학적 장치였다. 충돌을 통해 부각된 하나님의 욥에 대한 보호는 욥이 갈망하는 죽음으로의 길을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사탄의 진술을 더 강하게 상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욥기 독자들은 욥에게서 감금과 차단으로 고백 된 하나님의 통제를 바라보면서, 앞서 사탄에 의해 진술되었던 하나님의 보호가 여기서 욥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욥기 3장 23절의 신학적 함의

본 논문의 목적은 욥기 3장 23절의 “하나님에게 둘러싸여”가 담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살피는 것이었다. 욥이 하나님의 차단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는 1장 10절에서 사탄에 의해 보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론적 충돌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사적 장치로 작용하였다고 필자는 주장했다.

이 목적을 위해 욥기 3장을 스케치하고 23절을 주목하여 관찰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욥의 탄식이 23절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죽음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3절은 욥의 탄식과 죽음으로의 갈망이 절정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길이 숨겨졌다는 것은 욥이 갈망하는 죽음으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셨기에 갈 수 있는 경로가 모두 막혔다는 것을 밝혔으며, 욥의 좌절이 악화된

www.kci.go.kr

것이라 볼 수 있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는 죽음의 세계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고 가로막혔다는 의미라는 것을 드러내었다. 죽음으로의 차단은 곧 생명의 보호라는 것을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하기 때문이다.

욥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죽음을 간절히 원했지만 죽을 수 없는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동을 지목하였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숨기시고 막으셨다. 욥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행동은 사탄의 관점에서는 ‘보호’로, 욥의 관점에서는 ‘차단’으로 해석되었다. 두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의 의미로 통합되었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일관되었다. 사탄과 욥, 이 두 존재가 하나님의 관점을 다르게 인식했을 뿐이며 오히려 사탄의 관점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과 의지를 부각시키고 욥기 전체를 해석하는 주요한 열쇠로 작용하기까지 했다. 이중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두 본문이 함께 읽히는 것에 대하여, 알던(Robert L. Alden)은 하나님의 막음이 안전과 보호로 또는 공포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⁵⁷ 위협과 공포는 표면적이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며 우리의 편협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을 오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 위협과 공포로, 압박과 깊은 고통으로 다가가 벗어날 수 없는 수렁과 같은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하나님의 숨겨진 보호의 시간,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

57 Alden, *Job*, 79.

6. 나가는 말

욥기 3장은 한 남자의 죽음을 향한 갈망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다. 한 사람의 고통의 애가이면서 탄식이다. 이 탄식과 고통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 자신의 잉태와 탄생을 저주하여도 바뀌지 않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는 죽음을 향하는 것으로 자신의 길을 정한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숨기시고 막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하여 사탄은 ‘보호’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욥은 하나님의 감금과 차단 행위라고 탄식했다. 우리는 때로 고통에 짓눌려 우리의 길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을 알고 계신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한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열. “코로나 위기 시대와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논단」 82 (2021): 216-56.
- 강철구. “여성적 관점에서 본 욥기.” 「구약논단」 70 (2018): 66-90.
- 권지성. 『특강 욥기』 (서울: IVP, 2019).
- 김선중. “욥과 멜랑콜리아-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구약논단」 78 (2020): 8-36.
- 김정우. 『히브리 시학』. 서울: 기훈, 2013.
- 방정열. “히브리시의 평행법과 한글 번역: 한계와 여지.” 「구약논단」 69 (2018): 107-39.
- 유사라. “욥의 하나님 인식 변화 연구.” 서울: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하경택. “욥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8 (2015): 264-301.

www.kci.go.kr

- _____.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욱기 연구』. 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2006.
- _____. “욕기에 나타난 소통 신학.” *Cannon&Culture* 제7권 2호 (2013): 5-42.
- Alden, Robert L. *Job*. NAC. Vol. 11.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1993.
- Clines, D. J. A.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17, Waco, TX: Word Books, 1989.
- Dell, Katharine. “Cursed Be the Day I was Born!': Job and Jeremiah revisited”. in *Reading Job Intertextually*. Eds., Katharine Dell and Will Kynes, JSOTSup, 574; Bloomsbury: T&T Clark, 2013: 106-117.
- Driver, Samuel Rolles and George Buchanan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Together with a New Translation ICC*: 1921; repr., Edinburgh: T&T Clark, 1964.
- Ebach, Jürgen,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하경택 역. 서울: 한들, 2002.
- Eckstein, Juliane. “Why did knees meet me?’ giving birth one’s knees in Job 3:12”. *CBQ* 81 (2019): 381-404.
- Freedman, D. N. *Pottery, Poetry, Prophecy: studies in early Hebrew poetry*.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80.
- Habel, Norman, C. *The Book of Job*.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 Hawley, Lance. “The Rhetoric of Condemnation in the Book of Job”. *JBL* 139, no. 3 (2020): 459-478.
- Janzen, J Gerald. *Job*.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 López, René A. “The meaning of ‘Behemoth’ and ‘Leviathan’ in Job.” *Bibliotheca Sacra* 173 (2016): 401-24.
- Mathewson, Dan, *Death and Survival in the Book of Job: Desymbolization and Traumatic Experience*. JSOTSup. 450. New York, London: T&T Clark, 2006.
- Miller, Patrick D. “Trouble and Woe: Interpretation the Biblical Laments.” *Int* 37 (1983): 32-45.
- Pham, Xuan Huong Thi. *Mourning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Hebrew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Pelham, Abigail. *Contested Creations in the Book of Job*. BIS 113. Leiden/Boston: Brill, 2012.
- Perdue, Leo G. *Wisdom &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4.
- _____. “Job’s Assault on Creation”. *HAR* 10 (1986): 295-315.

Seow, C. L. *Job 1-21: Interpreta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MI/Cambridge, U.K: Eerdmans, 2013.

van Wolde, "The Problem of the Potsherd," *OTE* 31/3 (2018): 692-704.

Wilson, Gerald H. *Job*. Grand Rapids, MI: Baker, 2007.

검색어

욥기, 욥기 3장 23절, 이중적 의미, 수사학적 관찰, 의미론적 해석

[ABSTRACT]

An Equivocal Meaning of “God has hedged in” in Job 3:23

Sarah Ryu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make the message of Job meaningful to modern readers by observing the small meaning hidden in the language, text, rhetorical position, and arrangement in the Hebrew Bible. This study presents that “surrounded by God” in Job 3:23 is used by Job to denote confinement without an exit, blocking the way of Job. But earlier in Job 1:10, in Satan’s accusation in the prologue, it was first used to imply protecting all. These two meanings thus make a semantic collision.

In Job 3, Job’s lamentations continue to yearn for death until verse 23.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the meaning of “the way was hidden” in v. 23a reveals that God had hidden the path to the death Job longed for, and Job’s frustration was exacerbated by being “surrounded by God” in v. 23b. This indicates that the possible way was blocked by God. On the contrary, in 1:10 it is used by Satan in a sense of protection. I argue that this semantic clash could be seen as a rhetorical device to reveal the author’s ultimate intentions. This suggests that blocking with death makes the protection of life more revealing. Although Job longed for death to escape from suffering, he pointed to God’s action as the cause of his inability to die. God has hidden and blocked the way to death. God protected Job from death.

www.kci.go.kr

key words

The Book of Job, Job 3 : 23. equivocal meaning, rhetorical observation, semantics.

투고일 : 2022년 10월 01일

심사일 : 2022년 11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11월 28일

www.kci.go.kr